

최태응 소설과 “불구자”*

— 절망을 체현하는 힘의 수사학

이 지 훈**

요약

이 글은 최태응(1916-1998) 소설의 ‘불구자’ 형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그 구체적 의미를 구명해 보기 위해 쓰였다. 오래도록 관절염과 함께 살았던 최태응은 불구자라는 자의식을 여러 소설에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함으로써, 손상/장애를 체현한 이들의 고유한 존재론을 창안했다. 이에 이 글은 절망과 힘이 동시에 새겨져 있는 몸과 삶이야말로, 최태응 소설의 핵심 축이라는 사실을 힘주어 말하고자 했다. 의존과 돌봄이 인간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치유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며, 질병 서사를 읽는 일과 쓰는 일의 역능을 시사하는 작품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소설은 최태응 개인의 몸과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는 고투의 기록인 동시에, 손상/장애를 향한 윤리적 인식을 새롭게 요청하고 있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이 글은 이러한 최태응 소설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과의 우연한 연결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현재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나아가 그간의 독법들의 외연을 일찍이 스스로 넓혀 왔음을 논하고자 했다.

주제어: 최태응, 불구자, 손상/장애, 절망, 힘, 의존, 돌봄, 치유, 질병 서사

* 이 논문은 한국현대소설학회 2023년 제64회 전국학술대회(2023.12.15)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목차

1. 들어가며
2. 결함과 절망의 조건
3. 수술이 비추는 자리
4. (부)자유를 꿰뚫는 읽기와 쓰기
5. 나오며

1. 들어가며

“내가 소설을 쓰고 내 소설이 남들에게 읽혀지는 데 자그마한 다행이나 보람이 있다면 나는 내 운명이 나를 불구자로 만들어준 데 고마워 해야 할는지 모른다.”¹⁾ 1940년 『문장』의 신인 작가 3회 추천제를 통과한 최태웅(1916-1998)의 소감 첫 문장이다. 그리고 1949년, 지난 십 년 동안의 창작 활동을 돌아보며 최태웅은 다음과 같이 쓴다. “어떻든 나는 충암절벽과 같은 거대한 비운이 한번 휩쓸자 변모는 되고 인생은 슬피졌을망정 다시 감돌고 빠져 평야에 번듯이 문학이라는 외골수 흐름에 나를 띄웠다.”²⁾ 이렇듯 최태웅은 ‘불구자’로 산다는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가 하면, 그것이야말로 소설가라는 ‘외골수’의 삶을 추동했음을 힘주어 말한다. 실제로 최태웅은 불구자인 자신의 몸과 삶을 환기하는 동시에, 그것을 밑동 삼은 문제의식들을 담아낸 소설들을 잇따라 썼다. 불구자라는 자의식 이야말로 최태웅 소설의 기원이자, 그가 소설을 계속 쓰도록 만들었던 힘이었다는 것. 이 글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최태웅이 열아홉 살 무렵 축구를 하던 중 크게 다쳐, 오랜 병상 생활을 이어 나갔다는 것과 그 여파로 평생에 걸쳐 관절염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1) 최태웅, 「요설록」, 『문장』 2(4), 문장사, 1940, 129면.

2) 최태웅, 「나의 문학도회고」, 『백민』 5(2), 백민문화사, 1949, 63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³⁾ 그가 다양한 불구자 형상을 통해 이들 계적을 조금씩 변주해 가며 여러 소설에 기입해 두었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불구자 재현이 갖는 의미와 효과를 중심으로 최태웅 소설 세계 전반을 구명하고자 하는 논의들은 그간 활발히 제출되지 않아 왔다. 최태웅의 자전적 체험을 언급하거나, 그의 소설로부터 이른바 ‘휴머니즘’의 가치를 끌어 올리는 국면에서 부차적으로 다뤄져 왔던 경향이 우세했던 것이다. 최태웅의 초기 소설에 “청춘 시절에 겪었던 병마의 어두운 그림자와 일제 말엽 식민지의 비애가 드리”⁴⁾나고 있음을 언급한 배경열, “작가 자신을 포함한 변두리 인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⁵⁾에 기반한 온정적 휴머니즘이야말로 최태웅 소설의 의의임을 논한 유임하, 최태웅이 순박하고 의지적인 인물들을 주요하게 그렸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 예외에 해당하는 작품들로 “최태웅 자신의 관절염과 지병을 소재로 한 작품들”⁶⁾을 예시하는 안미영 등이 그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이들 논의는 그동안 좀처럼 조명받지 못해 온 최태웅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를 적극적으로 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의 소설 곳곳에서 출현하며 서사의 핵심으로 기능하는 수다한 불구자 형상들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일찍이 최태웅 소설을 “병약의 불구성”⁷⁾이 정형

3) 최태웅은 ‘관절염’으로 대표되는 자신의 병력과 관련하여 여러 문면에서 언급한 바 있다. 『요설록』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명을 직접 호명기도 하며, 『나의 문학도회고』에서는 자신의 ‘서툰 스포츠’로 인해 십육 개월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병상에서 생활했던 일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회상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최태웅의 차녀 최은철은 아버지를 추모하며, 일 년에 한 차례씩은 병원에 입원하곤 했던 최태웅의 삶이란 기실 늘 죽음을 곁에 두고 있었음을 말하기도 했다. 최은철, 『나의 아버지 최태웅』, 『죽순』 33, 죽순문학사, 1999, 147-152면.

4) 배경열, 『최태웅의 문학세계』, 최태웅, 권영민 편, 『최태웅 문학전집』 1, 태학사, 1996, 439면.

5) 유임하, 「어두운 시대 현실과 훼손된 삶의 일화들: 온정적 휴머니즘과 최태웅 소설의 현재적 의의」, 임규찬·박수연 외, 『해방과 분단, 경계의 재구성: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논문집 2016』, 민음사, 2016, 242면.

6) 안미영, 「최태웅 소설에 나타난 전후 인식: 전후(戰後) 미발굴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42, 어문연구학회, 2003, 121면.

화되어 있는 까닭에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평가했던 구중서, “몹쓸 병마”⁷⁾의 그림자로부터 차츰 벗어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의 과정으로 분석했던 임종국의 독법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불구자 형상을 중심으로 최태웅 소설 세계 전반을 다시금 이해해 본다면, 이른바 ‘재현의 전 형성’과 ‘극복 서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대목들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결손’과 ‘장애 상징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최태웅 소설을 읽을 것을 제안하는 김효석과 차희정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효석은 최태웅 소설의 인물들이 모두 어떤 “결손의 징표들”⁸⁾을 갖는다는 사실을 짚으며, 그 구체적 양상들을 ‘신체적 결손형’, ‘사회적 결손형’, ‘가정적 결손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때 ‘신체적 결손형’은 이 글이 다루는 불구자 형상과 밀접한 거리에 놓여 있는데, 김효석은 무엇보다 최태웅이 “경멸이나 조롱, 또는 희화화의 대상으로 신체적 결손인물을 형상화하지 않았음”¹⁰⁾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태도는 다른 두 결손형을 고안하는 방식과 더불어, 최태웅 소설이 갖는 휴머니즘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다뤄진다. 한편 차희정은 최태웅 소설에서 장애가 ‘역동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힘주어 말한 바 있다. 장애는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면서도, 인간애의 발현과 주체와 타자의 “새로운 존재론적 구성을 추동하고 조력”¹¹⁾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논의의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 글은 김효석과 차희정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참조하되, 그간

7) 구중서, 「최태웅의 문학, 그 집념의 고투」, 최태웅, 『마보 용철이 외』, 삼중당, 1975, 294면.

8) 임종국, 「고난을 극복하는 인생의 슬기: 최태웅의 인간과 작품」, 『여학생』 14(2), 여학생사, 1978, 143면.

9) 김효석, 「최태웅 소설의 작중 인물 고찰: 결손인물형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0, 우리문학회, 2010, 265면.

10) 위의 글, 269면.

11) 차희정, 「장애, 인간의 인간적 대화: 최태웅 소설의 장애 상징성」, 『숫대평론』 6, 한국장애예술인협회, 2020, 138면.

채 구명되지 못한 다음과 같은 물음들과 함께 최태웅 소설을 다시 읽는다.

‘육체적 결합’을 지닌 불구자 인물들이 등장하는 텍스트들을 거듭 감싸고 있는 고통과 비애의 정동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희망보다는 절망을 주춧돌 삼아 삶을 꾸리는 불구자 형상에 감도는 인식들은 무엇인가? ‘치유(cure)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동하는 현실에 가담하고 싶으면서도, 그것에 응전하고자 하는 인물들의 몸짓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들은 그저 손상/장애(impairment/disability)를 비극적인 것으로만 치환시키는 비장애중심주의(ableism)의 소산에 불과한 것일까? 비장애중심주의를 관통하며 이에 정면으로 맞서는 불구 정치(crip politics)와 공명하는 지점은 없는 것일까? 그런가 하면 몇몇 소설에서는 ‘작가’ 최태웅을 강하게 환기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출현은 또 다른 물음들을 남겨둔다. 손상/장애와 함께 사는 사람, 아픈 사람, 불구자 들은 ‘무엇’을 ‘어떻게’ 읽고 쓰며, 이와 같은 행위들을 추동하는 힘은 무엇인가? 또 이것은 최태웅의 창작 행위 전반과 관련하여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는가?

기실 불구자 형상을 중심으로 최태웅 소설을 재독하는 작업은 무척 중요하다. 그 중요성은 단순히 최태웅이 불구자의 몸과 삶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를 다룬 소설을 여럿 창작했다는 사실로부터만 싹트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최태웅은 다양한 불구자 형상들을 서사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질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¹²⁾를 묻고, 자신만의 ‘조건’을 이채롭게 탐색해 나간 작가였다. 손상/장애를 체현하는 몸과 삶이 절망과 조우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과연 ‘운명’으로 사유할 수 있을지를 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최태웅 소설은, 바로 그 ‘조건’을 새롭게 짓는 일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곧 최태웅 소설을 일종의 ‘투병기’가 아니라, 불구자의 존재론을 창안하는 고투의 기록으로 확장하여 읽어야 하는 이유다.

12) Arthur W. Frank, 메이 역, 『아픈 몸을 살다』, 봄날의책, 2017, 10면.

뿐만 아니라 최태웅 소설은 손상/장애와 불구에 대한 고유한 윤리적 인식을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그것을 독자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김은정이 언급한바, 이와 같은 윤리적 인식을 살피는 일은 긴요하다. 특히 최태웅 소설이 ‘치유’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더욱 그러하다. “어떻게 치유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서사의 해결책으로 등장하거나 주변 환경과 장애화된 몸 사이의 협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¹³⁾

최태웅이 그러했듯, 그의 소설 속 불구자 인물들은 아픈 채로, 잘 낫지 않는 손상/장애와 함께 삶을 꾸린다. 어쩌면 이들 인물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절망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삶을 어떻게 이어 나가는지를 중심으로 최태웅 소설을 읽는 이 글의 작업은, 텍스트 안팎을 넘나들며 최태웅에 대한 작가론을 새롭게 쓰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가 하면 불구자로 호명되는 인물들에게서 최태웅이라는 이름을 잠시 지우고 괄호로 남겨둔다면, 이 작업은 텍스트 밖의 많은 사람들과의 우연한 연결을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을 테다. 절망뿐만 아니라 힘과 의지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최태웅 소설이 아픈 사람, 손상/장애와 함께 사는 사람, 장애인, 자신의 질병이 사회로부터 장애로 인정받지 못한 까닭에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현장을 상상해보는 것.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¹⁴⁾

13) 김은정, 강진경·강진영 역,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근현대 한국에서 장애·젠더·성의 재화와 정치』, 후마니타스, 2022, 47면.

14) 이 글은 세 권의 『최태웅 문학전집』(권영민 편, 태학사, 1996)에 실린 판본들을 기본 텍스트로 삼는다. 인용시 해당 판본(이하 『전집』)의 권수와 면수만을 밝히기로 한다. 다만 유일하게 적실하게 지적했듯, 세 권의 전집에 채 수록되지 않은 작품들은 백 편을 상회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소설들 역시 『전집』에 실리지 않은 것들도 더러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원문을 기본 텍스트로 삼고 인용시 이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최태웅의 작품 연보를 작성하는 일은 2024년 현재에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작품 발굴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천성」(『민주경찰』 2(4), 경찰교육국, 1948), 「외할머니」(『해동공

2. 결함과 절망의 조건

최태웅 소설이 불구자 형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면, 그 관심이 가리키고 향하는 바는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절망’이다. 실제로 최태웅은 창작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여러 텍스트에 바로 이 절망, 즉 좀처럼 벗어날 길 없는 고통과 비애의 정동을 꾸준히 새겨 왔다. 가령 오른팔을 쓰지 못해 부두에서 좀처럼 노동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항구」(『문장』 2(3), 문장사, 1940; 『전집』 1)의 ‘곽서방’, 의수를 착용한 자신의 몸으로는 사랑을 할 수 없다며 회의를 거듭하는 「슬픈 승리자」(『백민』 4(12), 백민문화사, 1950; 『전집』 1)의 ‘상호’, 점점 심화되는 폐병/폐결핵과 함께 살다가 이내 목숨을 끊는 「액수」(『사상계』 6(8), 사상계사, 1958)의 ‘남편’ 등과 같은 인물들이 예시하듯, 절망은 서사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결함’이라는 키워드로 반복적으로 표현되곤 하는 손상/장애를 체현하고 있는 인물들의 몸과 삶으로부터 짙다.

유의해야 할 사실은, 이와 같은 재현이 손상/장애를 오로지 ‘불행’으로만 재단하며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 이른바 ‘정상화’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인식틀인 비장애중심주의와 어떤 ‘긴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손상/장애를 체현한 자신의 삶을 “홍물”¹⁵⁾로만 간주한 다거나 “표준형”¹⁶⁾의 몸을 향한 열망을 강하게 표출하곤 하는 인물들, 손상/장애를 제어할 수 없는 “성적 자극”¹⁷⁾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묘사 등

문』 3(3), 해동공문사, 1948), 「애인」(『대한소방』 1949년 5-12월호, 대한소방사, 1949), 「태교」(『신사조』 7(1), 신사조사, 1953), 「애베베의 비애」(『신태양』 2(14), 신태양사, 1953), 「미완」(『지방행정』 3(5)-3(6),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54), 「고독자」(『여원』 1957년 5월호, 여원사, 1957) 등의 작품들은, 2016년 유임하가 기존의 연보들을 보완하며 새롭게 작성한 연표(유임하, 앞의 글, 252-262면)에도 누락되어 있다.

15) 최태웅, 「병자연애」, 『평화일보』, 1948.7.17.

16) 최태웅, 「태교」, 『신사조』 7(1), 신사조사, 1953, 122면.

을 고려해볼 때, 최태웅 소설은 비장애중심주의적인 인식틀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손상/장애가 “시각적 다름”으로서만 제시되고 있다는 혐의, 이를 체현한 인물들이 “단 하나의 낙인찍힌 특성에 둘러싸인 기형인간”의 모습으로만 그려진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¹⁷⁾

그러나 최태웅 소설이 비장애중심주의와 맺는 관계는 이처럼 단일하지 않은 않다. 때로는 비장애중심주의의 문법을 우회하는 인식틀을 고안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의 핵심을 겨눴으로써 중요한 물음들을 제기하고 있는 까닭이다. 기실 이러한 면모는 최태웅 소설이 손상/장애와 결부된 절망을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정동으로만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추동하는 ‘조건’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짝튼다. 이에 최태웅 소설은 묻는다. 손상/장애와 함께 사는 삶이 절망의 연속이라면, 바로 이 절망이 싹트는 조건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불구자들의 사랑, 돌봄, 행복은 왜 중단될 수밖에 없는가? 절망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최태웅 소설의 인물들과 더불어, 고관절 탈구, 결핵성 관절염, 골수염과 함께 삶을 이어 나갔던 자신의 생애를 일종의 ‘덤’¹⁹⁾으로 인식하곤 했던 최태웅의 자의식이 갖는 의의는 바로 이들 물음과 더불어 탄생한다. 그리고 「취미와 딸과」(『문장』 2(6), 문장사, 1940; 『전집』 1)와 「고독」(곽하신 외, 『현대소설선』, 수도문화사, 1954)은 바로 이 절망의 조건을 사유하는 대표적인 텍스트다.

「취미와 딸과」의 ‘선비’는 소작농의 아들이자 오랜 친구인 ‘억만’이 심혈을 기울여 기르던 싸움닭에 쪼이고는, 관절염 진단을 받은 뒤 수술을 받고 돌연 ‘버둥다리’가 된다. ‘나무다리’를 하고 밖을 다녀야만 하는 상황은,

17) 최태웅, 「애배배의 비애」, 『신태양』 2(14), 신태양사, 1953, 84면.

18) Rosemarie Garland-Thomson, 손홍일 역, 『보통이 아닌 몸: 미국 문화에서 장애는 어떻게 재현되었는가』, 그린비, 2015, 25면.

19) 최태웅, 「덤」, 『미주문학』 3, 미주한국문인협회, 1985, 78면.

지주의 딸로서 서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평탄한 삶을 살아온 ‘선비’에게 있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선비’는 “죽으면 죽었지 다릴 찢르지는 않겠대구 내내 뻘”(『전집』 1, 154면)뎀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에는 한쪽 다리를 잘라내고 “한없는 슬픔과 무망”(『전집』 1, 155면)을 맞닥뜨린다. 오래도록 각별했던 ‘억만’ 역시 고통스러워하는 ‘선비’의 모습을 보고는 생각한다. “육체적 결함이란 결정된 절망이 아닐까.”(『전집』 1, 157면) 한편 ‘선비’는 차츰 급변한 일상에 적응하는가 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학습하기 시작한다. “대문 밖에 나서서 오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 등뎀추, 장님, 풍증쟁이, 온갖 불구자들이 살고 있음을 범상히 생각”(같은 면)하기도 하며, “선비의 숙명을 자기의 것 이상 통절해 하는”(『전집』 1, 158면) ‘억만’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몸과 삶을 부끄러워하거나 추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곁에서 돌봄을 수행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억만’과의 애정을 쌓아 나간다. 그러나 인식의 전환을 피하며 안온한 삶을 꾸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선비’는 다시금 병원으로 향하고 끝내 죽는다.

한편 「고독」의 ‘친’은 선천적 고관절 탈구와 함께 삶을 시작한다. 신을 향해 “웨 나를 버리시나이까”(187면)하고 물으며 한탄과 비관을 맞닥뜨리는 아버지 ‘조장로’ 못지않게, ‘친’은 자신이 사탄과 마귀의 후예에 지나지 않음을 자각한다. 홀로 방에 앉아 여러 서적을 독파해나가며 누구보다도 세상의 이치를 먼저 깨우치지만, “자기의 부족, 자기의 육체적 결함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둘러댈 아무런 염치도 이론도 없다는 사실”(193면)을 간파하고는 외로움을 떨치지 못한다. 그러던 중 ‘친’은 폐병을 회복하고자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로 요양을 온 ‘애선’과 조우한다. 이를 기점으로 ‘친’의 삶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남다른 생장과 슬픈 숙명의 테두리 안에서 어둡고 외로운 나날을 헤매이던”(197면) ‘친’과 ‘애선’은 급속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친’은 고뇌한다. ‘애선’을 향해 느끼는 열의, 사랑, 그리움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

들 감정은 그동안 자신의 몸과 삶을 향한 압담, 비판, 오너만을 거듭했던 ‘천’에게는 한없이 낮선 것이다. 그럼에도 ‘천’과 ‘애선’은 함께 이 고독을 돌파해 내고자 힘쓴다. “남이 보는 눈과 남이 따지는 일”(203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사랑을 이어나간다. 하지만 「취미와 딸과」의 ‘선비’가 그러했 듯, 서로 행복을 나눌 무렵 ‘애선’은 돌연 세상을 떠난다. 이어서 ‘천’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렇듯 「취미와 딸과」의 ‘선비’와 「고독」의 ‘천’은 ‘육체적 결함’과 함께 살면서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지만 이내 실패한다. 돌봄과 사랑 역시 중단 된다. 절망 및 고독과 결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은 예상치 못한 죽음 앞에 좌초되고 만다. 그렇다면 ‘선비’와 ‘천’의 삶과 죽음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이때 중요한 것은, 인물들의 죽음이 두 텍스트에 기입되어 있는 유일한 좌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삶의 곳곳에서도 절망들은 슬하게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손상/장애를 체현하는 몸으로부터만 기인 하지 않는다. 두 인물의 주변, 즉 손상/장애와 함께 사는 삶을 고립시키는 환경으로부터 보다 깊게 각인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시선들의 부조화가 있다. 「취미와 딸과」의 ‘선비’는 거리에 불구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광경을 처음으로 목격하고는 자신의 몸 역시 예사로운 것일 수도 있음을 깨닫는가 하면, 조금씩 ‘추의 의식’(『전집』 1, 158면)을 없애고자 힘쓴다. 그러나 “도적놈 제뿔이 저리다고 무어 남들이 그렇게 물론하는 것은 아니었다.”(같은 면) 즉 이와 같은 깨달음과 노력은 ‘선비’만의 몫일 뿐, 주변의 사람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즉각적인 호기심에만 머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앎과 공감적 동일시를 이끌어내는 응시(stare)의 움직임²⁰⁾은 더 이상 뻗어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선비’의 고투를 알아차리고 이를 지지해 주는 존재는 ‘억만’이 유일하며, 못 사람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다. ‘억만’과 ‘선비’의 관계가 마

20) 이와 관련해서는 Rosemarie Garland-Thomson, *Staring: How We Loo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188-193.

치 부부처럼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는, ‘선비’의 손상/장애를 오로지 소작농인 자신의 지위 상승을 보장해주는 “하늘이 내려준 혜택”(『전집』 1, 161면)으로만 여길 따름인 ‘억만’의 아버지 ‘푸언영감’의 태도는 무관심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고독」의 ‘천’을 향한 주위의 시선 역시 이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아버지 ‘조장로’는 ‘천’의 “불가사의한 태생”(191면)을 곧바로 신의 배신으로 치환하는가 하면, “도시 학교라고는 구경도 못해본”(197면) 채 고독에 침잠해 있는 ‘천’과 이렇다 할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매일같이 밀려드는 고독과 힘겹게 맞서며 살아온 ‘천’이 ‘애선’과 사랑을 나누면서 삶의 일신을 거칠게나마 예견할 무렵, 둘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애선’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다. ‘애선’이 “천이의 육체를 놓고 지나친 거리로 접근해가는 때마다 당황한 빛을 띄우고 손짓해 붙들어 세우”(202면)는 그녀의 태도에는, ‘천’과 ‘애선’의 사랑이란 불가능한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우려가 내재해있는 까닭이다. 요컨대 「취미와 딸과」의 ‘선비’와 「고독」의 ‘천’의 절망은 손상/장애와 함께 사는 몸으로부터만 움트고 확장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절망을 더욱 깊게 새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들의 삶의 의지를 제약하는 주변의 일방적인 시선과 태도에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태웅 소설이 힘주어 짚고 있는 절망의 조건일 테다.

그런 점에서 「취미와 딸과」의 ‘억만’과 「고독」의 ‘애선’은 절망의 확산을 지연시키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두 인물은 각각 ‘선비’와 ‘천’이 겪는 불안과 고통을 함께 감각한다. 때로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외로움을 경감시켜 주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강한 신뢰에 기반한 사랑을 선물하기도 한다. 그렇게 ‘억만’은 ‘선비’를, ‘애선’은 ‘천’을 돌본다. 한편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이들 사이의 돌봄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선비’는 소작농의 아들로서 멸시를 떠안아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인 ‘억만’을 오래도록 위로해 왔다. ‘억만’에게 “방학 때마다 깔죽없이 무엇이

건 선물을 사다 주기를 잊지 않”(『전집』 1, 145면)으며, “신식 공부생 멋쟁이 색시가 나 걸은 풋배기 일꾼하구”(『전집』 1, 148면) 어떻게 서슴없이 어울릴 수 있겠냐는 ‘억만’의 말을 일축하면서 진실한 우정과 사랑을 다져온 사람은 다름 아닌 ‘선비’였다. 그런가 하면 ‘천’은 자신이 고독을 느끼는 만큼이나 외로워하는 ‘애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천’은 ‘애선’의 폐병을 일체 문제로 규정하지 않은 채, ‘애선’으로 하여금 “한때나마 자기의 환경-처지를 잊고 기쁨에 넘칠 수 있는”(197면) 계기를 직접 마련하기도 한다. ‘애선’이 외로움에 북받쳐 눈물을 쏟을 적에는,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운다. 이에 ‘선비’는 ‘억만’을, ‘천’은 ‘애선’을 돌본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본다.

그런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상호 돌봄이 손상/장애를 체현하는 ‘선비’와 ‘천’이 꾸리는 삶의 가능성과 더불어 불가능성을 동시에 지시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들 인물이 돌봄을 기반으로 삶을 이어나가는 방안을 고안하는 여정으로부터 어떤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불가능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연 맞닥뜨리는 죽음과 결부되어 있다. 그렇다면 ‘선비’와 ‘천’의 죽음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무엇보다도 두 인물의 죽음은 상호 돌봄을 기반으로 하는 삶의 지속을 오래도록 꿈꿀 수 있는 여건이 채 조성되지 않았음을 환기한다. 이때의 여건이란 곧 돌봄과 의존을 기본값으로 삼는 “연립”의 관계망²¹⁾일 테다. 기실 두 소설에서 연립 또는 상호 돌봄은 오로지 ‘선비’와 ‘억만’, ‘천’과 ‘애선’ 양자 사이에서만 성사된다. ‘억만’과 ‘애선’은 각각 ‘선비’와 ‘천’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관계망인 것이다. 그러나 조안 C. 트론토(Joan C. Tronto)가 적확하게 지적했듯, 돌봄은 결코 일대일 양자 간에만 이루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²²⁾ 돌봄이란 당면하고 있는 시간, 공간, 사물 들부터 주변부에 위치하는 제삼자에 이르기까지 수다한 관계망 속에서 탄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두

21) 이와 관련해서는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2019, 327-330면.

22) Joan C. Tronto,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민주주의』, 박영사, 2023, 311면.

소설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부재하다. ‘선비’에게는 ‘억만’만이, ‘천’에게는 ‘애선’만이 있을 뿐이다. 이들의 관계망이 확장되어 돌봄이 보다 상호적으로 엮힐 수 있는 현장은 전무하다.

이처럼 비좁은 울타리를 넘어서는 돌봄이 상상되지 못하고 현실화될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취미와 딸과」와 「고독」은 모두 죽음이라는 사건을 기입함으로써 이 물음에 응답한다. 손상/장애 또는 ‘육체적 결함’을 체현한 존재들, 나아가 상호 돌봄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인간 존재들을 지탱하는 주변의 관계망이 확산되지 않을 때, 누군가는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 두 소설의 죽음은 바로 이 현실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 이렇듯 절망을 추동하는 조건들을 누락시키지 않는 「취미와 딸과」와 「고독」은, 이른바 ‘문제’ 또는 ‘비극’의 책임이 오로지 손상/장애를 체현하는 인물들의 몸과 삶에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서둘러 변화시켜야 할 것은 ‘선비’와 ‘천’과 같은 개인이 아니라, 이들을 향한 애정과 돌봄이란 중요하지 않으므로 거듭 미뤄두어도 무방하다는 인식들을 공유하는 사회다. 두 소설은 에바 페더 키테이(Eva Feder Kittay)가 말한바, 사회 적응을 위해 손상/장애를 체현한 존재들을 사회화시켜야 한다는 사고를 거부하고, 이들 존재의 몸과 삶을 경시하는 협소한 공동체를 사회화시켜야 한다는 인식들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²³⁾ 「취미와 딸과」와 「고독」이 주변의 환경을 문제화하며 새기는 새로운 조건은 바로 여기에 있다.

3. 수술이 비추는 자리

또 수술을 받았다. 『또 수술을...』 하는, 이 수술 위에 『또』가 붙기 시

23) Eva Feder Kittay, 김준혁 역, 『의존을 배우다: 어느 철학자가 인지장애를 가진 딸을 보살피며 배운 것』, 반비, 2023, 36면.

작한 지 꼭 삼십 년이 된다. 내가 스스로 「지긋지긋하다」는 말 외에 몇 곱 몇 십 곱짜리 뜻을 지닌 어휘를 찾지 못해, 자신을 어루만지며 「지긋지긋」을 뇌어온 지 근 삼십 년! 이제는 도합 몇 회인지를 모른다. 다만 내가 삼십 대일 때 내 나이보다 수술을 받은 횟수가 약간 많았다가, 다행히도, 몇 해를 무사히 지내고는 나이가 앞섰거니……인차 수술이 앞섰거니… 진정 이 이상의 「지긋지긋」이 어디 또 있을까. (….) 그러니 맨 처음, 결단이 나던 해의 십팔 개월을 비롯해서, 칠팔 개월짜리도 드문드문 했던 입원이다, 최소한짜리들을 계산한다면 대관절 병원에서 보낸 세월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²⁴⁾

손상/장애를 향한 차별적인 시선과 협소한 돌봄의 관계망들이 파급하는 위험을 그림으로써 결함과 절망의 조건을 묘사하는 최태웅 소설의 문제의식은, ‘치유’를 밀동 삼은 또 다른 사유들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그것은 인용된 위의 문면이 예시하듯, 끊이질 않는 수술과 손상/장애의 경과를 확신할 수 없는 몸과 삶으로부터 구체화된다. 기실 삼십여 년의 세월을 통과하며 몇 차례인지를 셈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수술을 맞닥뜨렸던 최태웅의 생애는, 그의 소설 곳곳에 고스란히 묻어나 있다. 예컨대 「아름 속에서」(『민족문화』 1(1),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1949)는 회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수술에 의심을 품으며 고양이를 잡아먹음으로써 차도를 피하는 결핵성 관절염 내원자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고, 「살인문제」(『문학예술』 1956년 10월호, 문학예술사, 1956; 『전집』 2)에서는 의사의 진단이 인간의 생사를 좌우한다는 사실과 오진의 문제를 짚어내기도 하며, 「나의 주변」(『자유문학』 1(3), 한국자유문학자협회, 1957; 『전집』 2)을 통해서도 신경증을 자각하고는 자발적으로 입원을 감행하는 사례를 그리기도 한다. 이렇듯 최태웅 소설에서는 잇따른 수술에도 나아지지 않는 몸, 입원과 퇴원이 일상이 되는 삶, 병원을 향해 느끼는 착종된 감정 등이

24) 최태웅, 「수술일생」, 『한양』 4(6), 한양사, 1965, 194면.

주요하게 다뤄진다. 다만 유의할 것은, 이들 텍스트가 손상/장애, 병원, 수술을 향한 단선적인 이해만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훨씬 복잡하다. 그리고 이때의 복잡성은 몸과 삶에 침입하여 어떤 흔적들을 고스란히 남겨두는 수술과 치유를 조명하는 과정에서 짝튼다.

「혈담」(『백민』 4(2), 백민문화사, 1948; 『전집』 1)과 「유명의 경지에서」(『백민』 4(5), 백민문화사, 1948; 『전집』 1)는 바로 이 침입의 기록이다. 연작의 성격을 갖는 두 소설은 「취미와 딸과」와 「고독」이 그러했듯, 손상/장애와 함께 사는 인물인 ‘나의 절망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나와 ‘숙희’의 사랑이 있다. 병상에서 생활하던 ‘나’는 간호사 ‘숙희’와 사랑을 주고 받는다. 하지만 둘의 사랑은 중단된다. 일전에 퇴원한 ‘나가 ‘숙희’와 오 년 만에 재회하며 서로를 향했던 마음을 확인할 때, 이미 ‘숙희’는 폐병이 꽤 진척되어 있었고 이내 죽음에 이르고 만다. 이에 ‘나는 절망한다. 한편 두 소설은 ‘숙희’와의 결별과 더불어 ‘나’를 괴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건을 집요하게 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고통과 불안을 좀처럼 잠재우지 못하는 수술들, 즉 치유라는 사건이다.

「혈담」의 ‘나는 온전히 회복되어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치유의 문법을 수긍하지 못한다. 의료적 치료가 반복될수록, ‘나는 혼란과 슬픔만을 느낄 따름이다. 오른쪽 다리는 점차 ‘나의 의사를 따르지 않으며, “클럿취(나무다리)”(『전집』 1, 264면)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 이에 ‘나는 이내 “XX가리라는 것을 먹고 죽었다가 되살아”(같은 면)나는가 하면, “아무 데나 쓰러져 한참씩 울고 몸부림치는”(같은 면) 등 절망한다. 대학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뼈를 깎아 내기도 하고 잔뜩 달려붙은 관절을 노주와 망치로 조”(『전집』 1, 267면)여도, ‘나는 회복되지 않는다. 오히려 “잘못 신축되고 잘못 달려붙은 신경과 근육들이 그대로 변통없는 채 기형”(같은 면)이 된 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이와 더불어 “줄곧 신경통이라는 괴롭고도 불쾌한 증세”(『전집』 1, 268면)를 맞닥뜨린다. ‘숙희’를 떠나 보내고 또다시 오 년이 흐르고도 상황은 전연

달라지지 않는다. ‘나는 “적십자병원에서 또 두 번이나 수술을 받고 흉물과 같이 누워있다.”(『전집』 1, 271면) 그리고 ‘숙희’가 그러했듯, “감출 새 없는 혈담”(『전집』 1, 272면)을 뱉는다.

‘나의 몸과 삶은, 엘런 새뮤얼스(Ellen Samuels)가 ‘불구의 시간’(crip time)²⁵⁾을 이른바 ‘시간 여행(time travel)으로 정의하며, “장애와 질병은 규범적인 생애주기의 선형적이고 점진적인 시간에서 우리를 빼내어, 앞뒤로 가속하고, 멈췄다가 출발하느라 덜컥이고, 지루한 간격과 갑작스러운 결말이 있는 워홀로 몰아넣는 힘을 갖는다”²⁶⁾고 논했던 바와 연장선을 그린다. 아픈 ‘나’에게 어떤 안정된 삶이란 요원하다. “온통 등골이 썩어 척추뼈들이 마디마디 노출되었던”(『전집』 1, 261면) 몸은 원하지 않았던 형태로 시시각각 변화하며, 이에 ‘나’는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며 절망하는 까닭이다. 연이은 입원과 수술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라고는, 언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를 몸과 삶의 불확실성뿐이다. 그리하여 『혈담』에서 실패하는 것은 ‘나’와 ‘숙희’ 사이의 사랑만이 아니다. ‘나’를 향한 의료적 치료 역시 실패한다. 수술로 대표되는 의료적 치료 행위란, ‘나’에게 혼란만을 가중시킨다. ‘나’가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25) ‘불구의 시간’으로 번역되곤 하는 ‘crip time’은 앨리슨 케이퍼(Alison Kafer)가 논했듯, 장애인 비장애인 중심으로 짜인 사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시하는 동시에, 오히려 그 요구가 비장애중심주의적인 시간관을 ‘재지향’(reorientation)함으로써 비장애중심주의의 인식틀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힘과 가능성을 일컫는다. Alison Kafer, 이명훈 역,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 오월의봄, 2023, 81-86면. 한편 이는 영미권에서 장애인을 향한 경멸과 배제를 담은 단어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온 ‘crip’을 자긍심의 언어이자 저항의 언어로 전유해 온 장애인 당사자들, 장애학, 장애 운동의 노력과 맞닿아 있다. ‘불구자’(不具者)라는 단어가 조선/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를 검토한 연구로는 소현숙, 『식민지 조선에서 ‘불구자’ 개념의 형성고 그 성격』, 『한국학논총』 4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정창권, 『근대 장애인사』, 사우, 2019, 117-152면; 박희병, 『병신』에의 視線: 前近代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26) Ellen Samuels, “Six Ways of Looking at Crip Time,”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37(3), 2017, <https://dsq-sds.org/article/view/5824/4684>. 접속일: 2024.8.19.

이때 의료적 치료와 불화하는 ‘나의 삶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의료적 치료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국면에 이르는 ‘나의 삶의 궤적은, 김은정이 지적한바 손상/장애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규정하고 치유 과정에서 그 대상을 파괴할 때 일어”²⁷⁾는 치유의 폭력성, 이른바 ‘치유 폭력’(curative violence)을 상기시키는가 하면, 그것이 실패하는 현장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실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는 치유는 미래의 회복을 약속하며 그것을 실현시키기도 하지만, 손상/장애 및 이를 체현하는 몸과 삶을 ‘제거’하는 절차를 수반한다. 일라이 클레어(Eli Clare)가 썼듯, “치유의 핵심은 언제나 제거”²⁸⁾인 것이다. 그러나 잇따른 수술에도 회복되지 않는 ‘나의 몸이 예시하듯, 치유는 늘 회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완벽한 제거를 기획함으로써 정당성과 정합성을 힘주어 갖추고자 하는 치유라는 이데올로기가 내장하고 있는 허점은 이렇게 가감 없이 드러난다. 오래도록 고스란히 남아 있는 ‘나의 아픈 몸을 설명할 수 없으니 말이다.²⁹⁾ 이처럼 치유에는 언제나 잔여의 지점이 있다는 것, 「혈담」은 이 중요한 사실을 짚는다.

의료적 치료가 ‘나에게 삶을 향한 의지를 불어넣을 수 없다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다지게 만들 수 있을까? ‘나’는 피할 수 없는 절망 앞에서 어떻게 삶을 꾸리는가? 「혈담」의 후일담으로 기능하는 「유명의 경

27) 김은정, 앞의 책, 38면.

28) Eli Clare, 하은빈 역, 『눈부시게 불완전한: 극복과 치유 너머의 장애 정치』, 동아시아, 2023, 61면.

29) 한편 일라이 클레어는 회복과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치유의 논리의 문제점을, 클레어 자신을 포함하여 “본래적인 비장애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함을 짚으며 지적한다. 그렇다면 손상/장애를 체현하기 전의 과거와 치유가 약속하는 미래가 지금 현재의 삶보다 좋은 것이라고 믿도록 강요하는 치유의 논리는 근본적으로 어긋날 수밖에 없다. 치유가 약속하는 미래란, 이들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클레어는 이와 같은 미래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어떻게 생겨야 했는가에 대한 상상으로부터, 정상적인 것과 자연스러운 것에 대한 규정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임을 힘주어 말한다. 치유가 이데올로기인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위의 책, 43-44면.

지에서」는 ‘숙희’의 존재를 통해 이들 물음에 답한다. 「유명의 경지에서」의 ‘나는 ‘숙희’의 삶과 죽음을 회고한다. 오 년 만에 다시 만난 ‘숙희’와 병상에서 함께 보낸 나날들을 술회한다. 간호사 ‘숙희’에게 돌봄을 받기만 했던 과거의 ‘나는 폐병으로 힘겨워하는 ‘숙희’를 돌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을 약속하며 미래를 꿈꾸었음을, “슬며시 멀지않아 닥쳐올 무한한 비애와 고통”(『전집』 1, 312면)을 전연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행복을 나누었음을 떠올린다. 「취미와 딸과」와 「고독」의 ‘선비’와 ‘억만’, ‘천’과 ‘애선’이 그러했듯, ‘나’와 ‘숙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절망을 비껴가는 삶을 모색했던 것이다.

하지만 ‘숙희’는 끝내 죽고, ‘나는 “그 지긋지긋한 불구”(『전집』 1, 314면)에 이어 폐결핵을 맞닥뜨리며 또다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오래도록 떨치지 못한 관절염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 “[열이] 나도 빼꼼빼꼼이 곱겨”(『전집』 1, 316면)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해야만 하는 까닭이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매일같이 환영으로 출현하는 ‘숙희’를 만난다. “열 번 이견 백 번이건 또는 천 근이건 만 근이건, 숙희는 굴하는 법이 없이 되 물리치고, 되살아오고, 그러는 것”(『전집』 1, 314면)이다. 그리하여 ‘나는 “가는 곳마다 숙희 없는 데가 없고 다닿는 일마다 숙희의 손이 거들떠 주지 않는 일이라고는 없”(『전집』 1, 318면)는 일상을 꾸리면서 좌절과 맞선다. 예전처럼 함께 생활하지는 못할지언정, 환영의 모습으로나마 계속 방문해서 말을 거는 ‘숙희’의 존재는 ‘나의 삶을 지속시킨다. 오 년의 세월을 딛고 숙희와 다시 만났을 적에 “천하없어도 죽을 수 없다는 용기”(『전집』 1, 314면)를 간직해 온 스스로에게 안도를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숙희’와의 만남을 이어나가는 ‘나는 삶의 의지를 다져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혈담」이 손상/장애의 호전이 유예되는 ‘나의 몸을 통해 이데올로기로써 작동하는 치유의 빈틈을 폭로하고 있는 것처럼, 「유명의 경지에서」는 이와 같은 ‘나의 결심을 기입함으로써 수술로 대표되는 의료적 치료가 삶

을 더 낮게 만드는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리킨다. 기실 ‘나’에게 있어 수술은 “몸에 징글스럽게 파고 앓은 길쭉길쭉한 수술 자리들”(『전집』 1, 318면)만 남길 뿐 안온한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이는 곧 소설이 쓰인 1948년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맥락, 즉 불충분한 의료서비스의 현실³⁰⁾과 “문학 예술의 자유가 제한되는 시대 현실에 대한 무력감과 상처 입은 시대 현실에 대한 피로감”³¹⁾을 지시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불구자로서 삶을 이어나간 최태웅이 체득했던 것이기도 하다. 최태웅은 힘을 복돋아 주지 못하는 치유를 향한 기대를 과감히 회수하는가 하면, 아픈 몸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을 나누고, 미래를 꿈꾸는 「혈담」과 「유명의 경지에서」의 ‘나’를 경유하며 묻는다. 손상/장애가 없는 몸만이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요컨대 「혈담」과 「유명의 경지에서」는 손상/장애를 체현하는 몸과 삶이 치유의 문법이 갖는 빈틈을 포착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동시에, 돌봄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힘주어 말한다. 두 소설의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이처럼 “제거할 수 없는 고통의 실존”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맞닥뜨린 몸과 삶이 “가치 있는 존재방식들의 일부”라는 사실³²⁾을 짚고 있다는 데에서 길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은 예후(prognosis)의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이것이 파급하는 모순과 혼란을 맞닥뜨리는 국면에서도 고유하게 창안해 낼 수 있는 새로운 시간성(temporality)의 질서가 실재한다는 사실³³⁾을 지

30) 차희정, 「해방기 소설 속 장애인의 현실 인식」, 『현대소설연구』 7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502면.

31) 유임하, 앞의 글, 238면.

32) Susan Wendell, 전혜은 역, 「건강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질환을 장애로 대우하기」, 『여/성이론』 27, 도서출판 여이연, 2012, 181-182면.

33) 이와 관련해서는 Sarah Lochlann Jain, “Living in Prognosis: Toward an Elegiac Politics,” *Representations* 98(1), 2007, pp. 88-90.

시하기도 한다. 연이은 고통과 절망의 국면을 간과하지 않은 채 삶을 꾸려 나가며 행복을 도모하는 「혈담」과 「유명의 경지에서」의 ‘나’의 모습이야말로, 최태웅이 꿈꾸고자 했던 삶의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리하여 ‘나’ 또는 최태웅에게 행복이란, 손상/장애의 극복 및 회복을 좇으며 삶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만 싹트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속회’와의 관계가 예시하듯 잘 낫지 않는 채로 삶을 지속시키도록 돕는 동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발견되는 것일 테다. 최태웅 소설이 절망을 체현하는 힘의 수사학인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4. (부)자유를 꿰뚫는 읽기와 쓰기

가슴에다 벼개를 깔고 다섯 시간이건 여섯 시간이건 옆드려서 글을 쓰는 버릇이라기보다도 그밖에 달리는 도리가 없는 유일한 형편이 팔자가 되어 어느덧 이십 년의 세월 동안을 살며 끄적여 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나의 문학이란 첫 작품부터 병상에서 비롯되었으며 다분히 『병원뽀으』 위에서 연명되고 이루어져 온 것이다. 이래 몇 달이나 몇 해를 요행 무사해서 지낼 수 있다손 치드라도 오히려 나는 병원이 그리운 것이기도 하다. 비록 삼등실 한 귀퉁이 일지라도 누구 개개는 사람이 없고 거슬림도 쪼들림도 없는 나만의 외로움이 간절한 것이다. 때로는 모으로 누어서도 쓰고 아주 반듯이 천정을 대하고 땀을 못할 때에도 그대로 자빠 누어서 글을 쓰기도 하고…….³⁴⁾

한편 「혈담」과 「유명의 경지에서」의 ‘나’가 그랬듯, 최태웅 소설의 불구자 인물들 가운데에는 삶을 이어 나가는 인물들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34) 최태웅, 「나의 창작여담: 고칠 수 없는 고쳐야할 버릇」, 『자유문학』 3(3), 한국자유문학자협회, 1958, 226-227면.

이들 인물이 마치 ‘작가’ 최태웅을 연상시키며 병상에서 잇따라 무언가를 읽고 쓰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인용된 위의 문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최태웅에게 병상은 그저 수술을 기다리거나 예후를 지켜보는 공간이 아니라, 소설 창작을 하며 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져 나간 곳이기도 했다. 홀로 누워 글을 썼던 때를 이따금씩 그리워할 만큼, 최태웅에게 병상은 그야말로 특별한 공간이다. 그리고 최태웅은 바로 이 특별함을 몇몇 소설에 흘뜨려 두기도 했다. 소설 속 인물들은 병상에서 손상/장애와 함께 살면서 책을 읽고 글을 쓴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읽고, 무엇을 쓰는가? 읽고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실 이들 물음은 무척 중요하다. 읽고 쓰는 인물을 그리는 소설들을 통해 ‘작가’ 최태웅 개인의 고투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텍스트 밖의 사람들, 특히 손상/장애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우연한 연결을 추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곧 최태웅 소설이 갖는 ‘현재성’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스핑크스의 미소」(『대조』 3(4), 대조사, 1948; 『전집』 1)의 ‘소년’이 있다. 어깨와 다리에 근염과 관절염이 있는 까닭에 수차례 수술을 받고 병상에서 생활하는 ‘소년’은 거둬 책을 탐독한다. “육체적 고통을 평생토록 제거할 수 없다는 체념할 수 없는 체념”(『전집』 1, 326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지언정 독서만큼은 멈추지 않는다. 안톤 체호프(Anton Pavlovich Chekhov)의 「내기」를 읽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의 「어둠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소년’의 울음은 자신이 당면한 상황과 직결되어 있다. 이는 곧 “시퍼런 칼날이 근육을 썰어 제치고 날카로운 쇠갈퀴리들이 뼈를 깎아내는 데 순간적이거나 히죽 웃을 수 있는 데로 변한 데 연유된 것”(『전집』 1, 329면)이기 때문이다. 한편 세상만사를 통달한 채 이른바 ‘니힐한 웃음’을 짓고 있는 스텝크스의 존재에 매료되어 있기도 하다. 서양 잡지를 들추면서 그리스, 로마, 이집트의 신화와 역사를 탐험하기를 즐기고 스텝크스와 대면해 보기를 꿈꾸기에 이른다.

「빠이론의 수명」(『문예』 4(4), 문예사, 1953; 『전집』 2)의 ‘윤희’ 역시 아프다. 일찍이 “아깝고, 서럽고, 어이없어도, 한 쪽 다리의, 대퇴골, 관절이 다소 부스러지고 기형적으로, 꾸불어진 채, 잔뜩 강직이 되어버”(『전집』 2, 301면)린 채 삶을 꾸린다. 그리고 ‘윤희’는 조지 고든 바이런(George Gordon Byron)의 작품들을 독파해 왔으며, 이에 머무르지 않고 바이런에게 자신의 모습을 대입시키며 서로를 견준다. 오랜 세월 바이런을 동경해 온 ‘윤희’는 “자기와 ‘빠이론’과를, 사실인 것처럼, 서로 바꾸어 놓고 미친 듯 미칠 듯이 헛갈려서 방황하고 신음하는 때”(『전집』 2, 310면)도 더러 있다. 무엇보다도 ‘윤희’는 서른일곱 살에 생을 마친 바이런보다 자신이 더 수명이 길다는 사실에 괴로워한다. 십 년 전, 의사로부터 적어도 바이런보다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언을 들으며 만족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제 때가 이르렀건만 어련히 죽지도 못한 ‘빠이론’”(『전집』 2, 313면)이 지금 현재의 ‘윤희’인 것이다.

그렇다면 ‘소년’과 ‘윤희’는 왜 읽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질병 서사’(illness narrative)를 읽는 아픈 사람들의 독서 행위의 의미를 짚은 메이의 논의를 경유할 필요가 있다. 메이는 손상/장애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써낸 서사에는 저마다 세부적으로 경험하는 바는 다를지라도, 어떤 유사점이 있음을 논한 바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몸을 지닌 인간이며, 몸을 통해서만 이 세계에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공통조건”으로부터 드러나며, 몸이 가장 중요한 존재로 등장함으로써 “몸의 위기가 삶의 위기가 되는” 공통된 경험으로부터도 싹튼다.³⁵⁾ 이에 아픈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쓴 질병 서사를 읽으면서, 몸이 삶의 전면에 출현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대입하고, 나눌 수 있다.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손상/장애를 체현하는 몸을

35) 메이, 「병자 클럽의 독서: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아픈 사람들」,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편,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 봄날의책, 2020, 157면.

가진 ‘소년’과 ‘윤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읽는다. 의미심장한 것은 두 인물이 읽는 텍스트들이 모두 자신이 맞닥뜨린 현실과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데에 있다.

만남은 몸을 매개로 하여 성사된다. 「스핑크스의 미소」의 ‘소년’이 읽는 체호프의 「내기」는 십오 년 동안 독방에 갇힌 채 일체의 외출을 할 수 없었던 ‘변호사’를 그리고 있으며, 릴케의 「어둠에게 들려준 이야기」에서는 “다리가 마비된 사람”³⁶⁾이 화자의 ‘이야기’를 들곤 했던 청자로서 소개된다. 스텝크스는 인간과 동물의 모습이 한데 섞여 있는 존재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괴물”(『전집』 1, 324면)의 몸을 갖고 있다. 「빠이론의 수명」의 ‘윤희’가 그토록 경애하던 바이런은 널리 알려져 있듯, 어릴 때부터 다리를 절뚝거리며 생활했고, 터키에 대항하는 그리스 독립 투쟁에 가담했다가 그 현장에서 열병을 얻고는 숨을 거뒀던 예술가이기도 하다. 요컨대 ‘소년’과 ‘윤희’는 홀로 갇혀 있고, 손상/장애와 함께 살며, 여느 인간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이 등장하는 글과 책을 읽는다.

「스핑크스의 미소」의 ‘소년’은 독방의 수인이 되어버린 「내기」의 ‘변호사’의 처지에 이입했을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시시하고 무상하며, 신기루처럼 공허하고 기만적인 것”³⁷⁾이라 여기며, 자신만의 자유를 찾아 나서는 그의 모습을 동경했을까? 「어둠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읽고는 부재하는 청자의 자리에 스스로를 위치시켜 보았을까? 진설로 내려오는 스텝크스의 지혜와 초연함을 접하면서는 자신의 절망을 잠재웠을까? 「빠이론의 수명」의 ‘윤희’가 바이런의 작품만큼이나 그의 생애에 몰입하고자 했던 데에는, 당대 영국 사회의 도덕성과 보수성을 강하게 거부했던 ‘투사’ 바이런의 삶 말고도 평생 다리를 절뚝여야만 했던 ‘불구자’ 바이런의 생애 역시 영향을 미쳤을까?

36) Rainer Maria Rilke, 송영택 역, 「어둠에게 들려준 이야기」, 『사랑하는 하느님 이야기』, 문예출판사, 2018, 142면.

37) Anton Pavlovich Chekhov, 박현섭 역, 「내기」, 『체호프 단편선』, 민음사, 2012, 145면.

두 소설의 문면은 이들 물음에 직접 답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처럼 여러 독서 행위를 서사 전면에 등장시키는 두 소설이 “단순히 서양명작을 이는 것을 뽐내고자 하는 허영이거나 속물교양”³⁸⁾을 현시하는 데에 그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손상/장애를 체현하고 있는 몸이 한가운데에 위치한 동일시(identification)의 다채로운 측면들을 보여준다. 「스핑크스의 미소」의 ‘소년’과 「빠이론의 수명」의 ‘윤’이 수행하는 읽기는, 텍스트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며 병상에서의 고립을 벗어나기를 회구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삶을 향한 인식의 중대한 변화를 추동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리타 펠스키(Rita Felski)가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식을 논하며 지적한바, 두 인물은 “단순히 이전의 자아를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 풍부하게 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동일시, 즉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을 재조정”하는 국면에까지 이르는 것이다.³⁹⁾

가령 스텝크스의 ‘니힐한 미소’를 대면하기를 바라 온 「스핑크스의 미소」의 ‘소년’은, 위독한 상태로 입원하여 끝내 죽음에 이른 옆 병실의 ‘여공’인 ‘경숙’에게서 바로 그 미소를 본다. 마치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하기라도 한 듯 미소를 띠며 죽었던 ‘경숙’의 모습은, ‘소년’으로 하여금 그간 반복적으로 읽어 온 스텝크스의 형상을 환기시킨다. 그리고 ‘소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빠르게 잊힌 “이름도 껍질도 없는 여공”(『전집』 1, 326면)이 지나 온 생애를 상상하고, 이야기를 짓는다. ‘경숙’을 위한 서사를 이어 나간 끝에, ‘소년’은 주변의 무관심이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미소를 잊지 않을 것을 결심한다. 한편 자신과 ‘빠이론’을 견주며 괴로워하던 「빠이론의 수명」의 ‘윤’은, 비판을 강하게 꾸짖는 ‘아버지’의 출현을 맞닥뜨린다. 마치 ‘빠이론’과 “하나로 뭉쳐진 것의 환상”(『전집』

38) 박진숙,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서양문학 독서행위의 양상과 수용미학」, 『구보학보』 14, 구보학회, 2016, 161면.

39) Rita Felski, *Hooked: Art and Attachmen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20, p. 83.

2, 314면)의 형상으로 마주한 ‘아버지’의 분노에 충격을 받고, 때 늦은 죽음을 한사코 기다려 온 지난 날들을 반성한다. 이에 ‘윤’은 더 이상 삶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빠이론’이 아니었다.”⁴⁰⁾ ‘빠이론’은 그 자체로 ‘윤’의 삶을 지속시켜 왔지만, ‘윤’의 자아 모두를 대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체득한 것이다. 그리하여 ‘소년’과 ‘윤’은 여러 책들을 탐독하며 동일시 과정을 지나면서 자신의 삶을 갱신해 나간다. 스프링크스의 존재는 ‘소년’으로 하여금 ‘경숙’이라는 낯선 타인을 환대하도록 이끌고, 바이런을 향한 ‘윤’의 애착은 자아 감각의 재조정 또는 거리 두기의 과정을 수반하면서 삶을 더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두 인물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그 폭은 보다 넓어진다.⁴¹⁾

한편 삶의 지속과 확장을 이끄는 갱신은 독서뿐만 아니라 창작의 과정에서도 모색된다. 다만 읽기의 절차가 그러했듯, 문학을 쓰는 행위 역시 지난하다. 이를테면 ‘작가’ 최태웅의 형상을 직접 등장시키는 「작가」(『춘추』 23, 조선춘추사, 1942; 『전집』 1)는, 결핵성 고관절염과 함께 사는 불구자로서 문학을 한다는 것,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사유한다. “황금이 문제가 아닌 마음의 재력과, 용솟음치는 희망”(『전집』 1, 181면)을 말하는 데에 문학의 가치가 있음을 일찍이 자각한 ‘나’는 자문한다. “장차 최태웅이가 한 작가가 되는데 꼴이라니 참혹한 절름발이를 마

40) 최태웅, 「빠이론의 수명」, 『문예』 4(4), 문예사, 1953, 151면. 해당 대목은 소설의 마지막 장면으로, 『전집』 2에는 누락되어 있다.

41) 한편 차희정은 「스프링크스의 미소」와 「빠이론의 수명」을 당대 현실을 향한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스프링크스의 미소」의 ‘경숙’은 릴케의 「어둠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등장하는 ‘클라라’와 포개어지며, ‘소년’은 “희망을 허락하지 않지만 절망 또한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비판적으로 현실을 인식”(차희정(2020a), 앞의 글, 509면)하기 시작한다. 아울러 차희정은 「빠이론의 수명」의 ‘윤’의 손상/장해를 “순수한 삶의 의지를 추동하는 상징”(차희정(2020b), 앞의 글, 132면)으로 읽어 내며, 그것이 비판적 현실 인식의 형성과 이상적 현실을 향한 회구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논했다. 차희정의 분석은 「스프링크스의 미소」의 ‘소년’과 「빠이론의 수명」의 ‘윤’이 경험하는 변화를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글의 논의와도 연장선을 그린다.

치 무기(라기보다도 대관절 어떤 관계 있는 것) 따위로 삼았대서야 될 말인가.”(『전집』 1, 178면) 그런데 ‘참혹한 질름발이’의 몸은 자신의 의지로 떨쳐 낼 수 없을뿐더러,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숨길 수도 없는 까닭에 ‘나는 곤혹을 맞닥뜨린다.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나아지지 않는 관절염, 처음으로 ‘나의 몸을 대면하고는 눈물을 글썽이는 독자 ‘K양의 존재는 그 곤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가로서의 삶을 쉽게 중단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기가 작가라는 금지와 인식과 계산을 지니고 문학을 영위”(같은 면)하는 데에는 회의를 느끼지만 문학이 갖는 힘을 향한 신뢰를 이어나가는가 하면, 존경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오는 유일한 독자 ‘K양이 있으니 말이다. ‘K양의 다음과 같은 부탁이, 작가로서의 자의식을 모색하고자 하는 ‘나의 삶의 동력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 까닭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내내 선생님은 어디까지나 작가가 아니면 아니되었습니다.”(『전집』 1, 191면)

험난함을 무릅쓰면서도 글을 쓰는 「작가」의 ‘나의 삶은, 소설 당선 소식을 접하고 환희를 느끼는 「차창」(『문학』 6(3), 중앙문화협회, 1950; 『전집』 1)의 ‘윤’의 모습과도 연장선을 그린다. ‘윤’은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는 병상에서 “당장 제 손으로 새명(새)명을 없애고 싶은 충격에 사로잡혀 끝없는 비관을 겪고 나서, 미친 듯이 엎드려”(『전집』 1, 410면) 글을 쓴다. ‘윤’에게 안정을 북돋게 만드는 유일한 때는 이처럼 무엇인가를 쓰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를 곁에서 돕는 간호사 ‘부옥’이 있다. “윤이 글만 쓰려는 눈치가 보이면, 부옥은 마치 조난자가 구원의 손길을 만난 듯이 편의를 위해서 애”(『전집』 1, 411면)를 썼던 것이다. 비관을 직시하며 써낸 소설이 덜컥 당선되자, 곧바로 ‘윤’은 그 과정을 함께 한 ‘부옥’에게 “우리가 쓴 소설”(『전집』 1, 414면)이라고 언명하며 기쁨을 나눈다. ‘부옥’ 역시 ‘윤’의 말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그것은 물론 오로지 윤의 피와 뼈로 만들어진 작품이었으나, 부옥이에게는 윤의 말대로, 「우리가 쓴」 소설임을 부인하지 않았다.”(같은 면) 그렇게 ‘윤’은 본격적인 작가로

서의 삶을 시작한다.

이렇듯 「작가」와 「차창」은 손상/장애를 체현한 몸으로 글을 쓰며 삶의 의지를 다져 나가는 인물들을 그린다.⁴²⁾ 이때 두 소설의 ‘나’와 ‘윤’의 창작 행위가 비단 자신의 손상/장애를 향해 느끼는 고통과 비애를 청산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창작은 이른바 개인적인 ‘성공’만을 지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두 소설은 K양이 예시하듯, 창작 행위가 다른 행위자들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얽힘의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부옥’이 시사하는 것처럼, 돌봄과 애정을 기반으로 한 공동 작업일 수 있다는 값진 사실을 일러준다. 즉 손상/장애를 체현하는 몸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이로부터 길어 올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함께 탐사하고 있는 것이다. ‘나’와 ‘윤’이야말로, 비관으로부터 형성되는 자의식이 삶을 이끄는 중요한 거름이 될 수 있음을, 손상/장애를 체현한 몸으로 무엇인가를 쓴다는 것은 “몸에 대한 이야기일뿐 아니라 몸의 이야기이며 몸을 통한 이야기”⁴³⁾를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하여 두 소설은 이들 가능성이 삶의 조건과 창작의 조건을 새롭게 정초하는 국면에서도 피어날 수 있으며, 이른바 부적합(misfit)하다고 여겨지는 손상/장애를 체현하는 몸이 기존의 협소한 인식틀들을 바꿔 나가면서 무엇인가를 가르쳐줄 수 있음을, 나아가 이러한 부적합의 경험이 인간 삶의 근본적인 조건일 수 있다는 사실⁴⁴⁾을 언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실 이는 「작가」와 「차창」뿐만 아니라, 불구자 인물들을 재현하는 최태응의 소설 창작 전반의 특질을 관통하는 물음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선

42) 이와 같은 형상을 주요하게 그리는 또 다른 작품으로는,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극심해진 일제의 횡포와 부자유한 자신의 다리를 향해 느끼는 자포와 경멸 속에서도, 문학만은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을 결심하는 작가 ‘윤’을 형상화한 「참새」(『백민』 5(3), 백민문화사, 1949; 『전집』 1)가 있다.

43) Arthur W. Frank, 최은경 역, 『몸의 증언』, 갈무리, 2013, 270면.

44) Rosemarie Garland-Thomson, “What Misfitting Makes,” *Puncta* 7(1), 2024, pp. 14-15.

고관절 탈구, 결핵성 관절염, 골수염과 함께 살아가며 최태웅이 손상/장애를 체현하는 자신의 몸으로부터 창발하고 심화되는 고통과 절망과 같은 “중요한 감정적 현실”⁴⁵⁾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한 끝에 얻어진 결과물이다. 이러한 측면이 ‘몸의 이야기’이자 ‘몸을 통한 이야기’임을 보여 준다면, 저마다 다른 위치에 놓인 불구자 인물들을 그림으로써 삶을 제약하는 여러 조건을 드러내는 동시에, 외부의 한계에 대한 정치한 사유를 개진하는 일련의 소설들은 ‘몸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리하여 불구자를 재현하는 최태웅 소설은, 오래도록 손상/장애와 함께 살았던 최태웅 개인의 몸으로부터 출발하여, 손상/장애를 그저 개인적인 비극이나 불행으로만 간주할 수 없다는 인식들을 힘주어 말하는 동시에, 손상/장애를 체현하는 몸이 갖는 역능을 중심으로 세계의 조건을 다시 구축해 보는 작업을 시도함으로써 중요한 ‘정치성’을 확보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요컨대 병상에서 손상/장애를 체현한 몸으로 독서와 창작을 하며 삶을 이어 나가는 인물들이 주요하게 등장하는 최태웅 소설들은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이들 소설은 몸의 문제가 삶의 화두에 오르곤 하는 아픈 사람들의 읽기와 쓰기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핑크스의 미소」의 ‘소년’과 「빠이론의 수명」의 ‘윤’이 예시하듯, 읽기는 몸이라는 공통된 화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하면,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삶의 폭을 확장시키는 동일시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또 다른 누군가와 우연한 연결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작가」의 ‘나’와 「차창」의 ‘윤’이 환기하듯, 쓰기는 그 자체로 손상/장애를 체현하는 몸으로부터 쓰인 ‘질병 서사’로 기능하면서, 상호 의존에 기반한 공동 작업의 과정이자 결과일 수 있다. 불구자를 재현하는 최태웅 소설이 정치성과 더불어 또 다른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면, 그것은 이처럼 취약성과 가능성이 서로 맞물리며 진행되는 이들 인물의 읽기와 쓰기가 거듭 자기 바깥으로

45) Eli Clare, 전혜은·제이 역, 『망명과 자긍심: 교차하는 퀴어 장애 정치학』, 현실문화, 2020, 52면.

뻗어나가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테다. 그리고 이는 텍스트 안팎을 넘나 들며 지금-여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다름 아닌 ‘현재성’ 일 것이다.

5. 나오며

지금까지 이 글은 불구자라는 자의식이 최태웅 소설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것이 손상/장애를 체현한 인물들을 주요하게 그리는 텍스트들과 어떻게 접속하는지를 구명해 보고자 했다. 이때 여러 작품에 고루 흠뻑려져 있는 것은 단연 ‘절망’이었다. 최태웅이 몇몇 수필을 통해서도 밝힌 바 있듯, 절망은 최태웅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정동이기도 했다. 이에 최태웅은 소설을 통해 자신이 오래도록 맞닥뜨린 절망에 대한 사유를 긴 시간에 걸쳐 개진해 왔다. 불구자의 절망이란 어디에서 어떻게 탄생하는지, 어떤 경로를 통과하며 심화되거나 경감되는지, 이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일이 어려운 까닭은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게 썼다. 그리하여 이 글은 최태웅 소설의 의의를 절망의 조건을 묻고, 절망이 추동하는 힘의 존재를 짚고 있는 장면들에서 찾하고자 했다. 손상/장애를 그저 ‘비극’으로만 재단하는 외부의 시선, 돌봄의 관계망이 폭넓게 확장되지 못하는 현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몸이 전자라면,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절망과 더불어 싹트는 사랑, 돌봄, 읽기, 쓰기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한편 손상/장애를 밑동 삼은 최태웅 소설이 ‘자전적 소설’뿐만 아니라, 새로운 윤리적 인식을 요청하는 ‘질병 서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관절 탈구, 결핵성 관절염, 골수염이라는 진단명으로는 축약 불가능한 삶의 수다한 면모들이 담겨 있는 동시에, 독자/수용자에게 손상/장애에 대한 최태웅만의 고유한 존재론을 제시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 존재론은 무엇보다도 ‘인간성’(humanity)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최태웅 소설은 ‘인정’(人情)을 ‘애정’(愛情)과 연결시키곤 하는데⁴⁶⁾, 이는 곧 인간의 삶이 상호 의존과 상호 돌봄에 기반한 것임을 힘주어 말하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절망을 체현하는 힘이 탄생하는 배경 역시, 바로 이 인정과 애정에 기반한 인간성과 맞닿아 있다.⁴⁷⁾ 그렇다면 불구자를 재현하는 최태웅 소설이 요청하는 윤리적 인식이란, “신체적 역량으로서의 움켜쥌(grip)”⁴⁸⁾의 부담을 함께 덜며 의존과 돌봄을 서로 나누는 실천을 인간 삶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하는 대목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태웅 소설이 이른바 ‘휴머니즘’(humanism)의 재현으로 읽혀 온 독법들의 외연을 일찍이 스스로 넓혀 왔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기실 손상/장애 및 불구자의 재현을 중심으로 최태웅 소설을 읽을 것을 제안하는 이 논문의 작업은, 최태웅이 남긴 복잡다단한 족적과 흔적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를 재평가하는 일이기도 하다. 유임하가 지적했듯, 그동안 이루어져 온 최태웅 소설의 논의들은 “텍스트 바깥의 문화적 정치적 요소”, 이를테면 최태웅이 1945년 월남 이후 우익 문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한국전쟁 당시 육군 중군작가단에 참여하는 등 “반공 우익 민족주의자의 성향을 가진 월남민 출신의 언론문화인”이었다는 사실⁴⁹⁾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 실제로 몇몇 최태웅 소설에는 “대한민국/남한과 자신을 일체화”⁵⁰⁾하기를 바라며, “애국심을 고취하고 공산주

46) 최태웅, 「취미와 딸과」, 『전집』 1, 150면; 최태웅, 「나의 주변」, 『전집』 2, 506면.

47) 해당 서술은 학술대회 발표 당시 토론자였던 백종륜 선생님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참조하여 쓰인 것이다. 최태웅 소설의 존재론이 ‘인정’과 ‘애정’이 추동하는 불구자 인물들의 (재)인간화 과정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음을 지적하며, 이 글의 논의가 진전되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은 백종륜 선생님에게 이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린다.

48) Gayle Salamon, 전해은 역, 「휴머니티학의 현상학: 장애, 메트로-폰티, 최태한의 움켜쥌의 오류」, 『여/성이론』 49, 도서출판 여이연, 2024, 136면.

49) 유임하, 앞의 글, 229면.

50) 공임순, 「빨치산과 월남인 사이, ‘이승만’의 재현/대표성의 결여와 초과의 기표들」, 『상허학

의에 대한 강한 적개심⁵¹⁾을 드러내는 최태웅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 밝힌바, 최태웅 소설에는 이러한 사상적 행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잔여의 지점들이 실재한다. 최태웅이 “(무)소속의 정치적 난민⁵²⁾이라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월남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두고 오랜 고민을 이어나갔다는 사실, 나아가 이 같은 현실이 불러 일으키는 “심리적 저항감⁵³⁾”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사실까지 염두에 둔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가령 월남 및 한국전쟁 종군 이후 ‘반공 우익 민족주의자’로서의 최태웅의 면모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읽혀 온 『전후파』(『평화신문』, 1951.11-1952.4; 『전집』 2)에는, “한국전쟁으로 고조된 공산주의에 대한 대결의식⁵⁴⁾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주아가 논한바 “이념 자체를 냉소하는 듯한 서술⁵⁵⁾이 함께 기입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 있다면, 그것은 ‘사상’과 ‘이념’의 문제만큼이나 『전후파』에는 ‘몸’의 문제가 전면에서 출현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때의 몸은 단연 이 글에서 다른 소설들이 그러했듯, 아픈 몸, 쓰러지는 몸, 손상/장애를 체현하는 몸이었다. 『전후파』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전후파’(après-guerre)만을 겨누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전쟁의 국면을 통과하면서, 텍스트 밖 최태웅이 걸어온 길을 강하게 환기시키는 ‘동규’의 몸 역시 부상한다. ‘동규’는 종군을 계기로 전선에서 객혈을 쏟아내고, 입원하여,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다.

보』 27, 상허학회, 2009, 394면.

51) 신영덕, 『한국전쟁과 종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142면.

52) 정주아, 「정치적 난민의 공간 감각, 월남작가와 월경의 체현」, 『한국근대문학연구』 31, 한국근대학회, 2015, 54면.

53) 반제영, 「붉은 청년과 반공의 교양: 한국전쟁기 젊음(적)의 재현과 성장(전향)의 서사」, 『한국문학연구』 65, 한국문학연구소, 2021, 298면.

54) 김효석, 「전후 월남작가 연구: 월남민 의식과 작품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59면.

55) 정주아, 앞의 글, 50면.

그러면서 점차 ‘동규’의 내면은 바로 아픈 몸에 대한 자의식으로 채워진다. 자신은 다른 이들과는 달리 ‘진정한’ 친구(戰友)가 될 수 없음을 맞닥뜨리는 ‘동규’, 이는 곧 최태응이 몸의 문제를 주요하게 고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흔적은 아니었을까? 만일 그렇다면, 그 흔적은 최태응이 손상/장애를 체현한 몸, 불구자의 몸으로 이 (남한) 사회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를 자문해 온 족적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을 테다.

요컨대 이 글의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이처럼 최태응과 그의 소설이 갖는 ‘복잡성’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최대한 많은 작품들을 소개하고자 했으며, 최태응 소설이 갖는 다채로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분석을 수행하고자 했다. 적지 않은 텍스트들이 그동안 주요하게 거론되지 않아 왔던 현실을 드러내고, 최태응의 문제의식은 쉽게 휘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힘주어 말하기 위함이었다. 최근 최태응 소설을 ‘생태학적 상상력’과의 관련성 속에서 재독하는 논의⁵⁶⁾, 나아가 손상/장애를 재현한 텍스트들을 “몸의 인지 서사학”⁵⁷⁾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는 흐름에 이 글의 작업이 함께 놓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최태응 소설이 손상/장애에 부착된 그간의 몰이해를 재고하도록 요청하면서, 손상/장애를 체현한 몸에 대한 앎을 “하나의 문제이자 드라마”⁵⁸⁾로 다시금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서사적 인식론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 글 역시 그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같은 작업은 앞으로도 보다 정교하면서도 폭넓게 이어져야 할 것이다.

56) 김인경, 「최태응 소설에 나타난 생태의식 연구」, 『문학과학경』 16(4), 문학과학학회, 2017.

57) 노대원, 『몸의 인지 서사학: 질병과 치유의 한국 소설』, 박이정, 2023.

58) Peter Brooks, 백준길 역, 『스토리의 유혹』, 엘피, 2023, 86면.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최태웅, 「항구」, 『문장』 2(3), 문장사, 1940.
- _____, 「요설록」, 『문장』 2(4), 문장사, 1940.
- _____, 「취미와 딸과」, 『문장』 2(6), 문장사, 1940.
- _____, 「작가」, 『춘추』 23, 조선춘추사, 1942.
- _____, 「병자연애」, 『평화일보』, 1948.7.13-7.17.
- _____, 「혈단」, 『백민』 4(2), 백민문화사, 1948.
- _____, 「유명의 경지에서」, 『백민』 4(5), 백민문화사, 1948.
- _____, 「스핑크스의 미소」, 『대조』 3(4), 대조사, 1948.
- _____, 「나의 문학도회고」, 『백민』 5(2), 백민문화사, 1949.
- _____, 「참새」(『백민』 5(3), 백민문화사, 1949.
- _____, 「아름 속에서」, 『민족문화』 1(1),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1949.
- _____, 「차창」, 『문학』 6(3), 중앙문화협회, 1950.
- _____, 「슬픈 승리자」, 『백민』 4(12), 백민문화사, 1950.
- _____, 「태교」, 『신사조』 7(1), 신사조사, 1953.
- _____, 「애배배의 비애」, 『신태양』 2(14), 신태양사, 1953.
- _____, 「빠이론의 수명」, 『문예』 4(4), 문예사, 1953.
- _____, 「고독」, 곽하신 외, 『현대소설선』, 수도문화사, 1954.
- _____, 「살인문제」, 『문학예술』 1956년 10월호, 문학예술사, 1956.
- _____, 「나의 주변」, 『자유문학』 1(3), 한국자유문학자협회, 1957.
- _____, 「나의 창작여담: 고칠 수 없는 고쳐야할 버릇」, 『자유문학』 3(3), 한국자유문학자협회, 1958.
- _____, 「액수」, 『사상계』 6(8), 사상계사, 1958.
- _____, 「수술일생」, 『한양』 4(6), 한양사, 1965.
- _____, 「덤」, 『미주문학』 3, 미주한국문인협회, 1985.
- _____, 권영민 편, 『최태웅 문학전집』 1-3, 태학사, 1996.

2. 단행본

-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2019.
- 김은정, 강진경·강진영 역, 『치유러는 이름의 폭력: 근현대 한국에서 장애·젠더·성의 재화와 정치』, 후마니타스, 2022.

- 노대원, 『몸의 인지 서사학: 질병과 치유의 한국 소설』, 박이정, 2023.
- 신영덕, 『한국전쟁과 중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 정창권, 『근대 장애인사』, 사우, 2019.
- Brooks, Peter, 백준걸 역, 『스토리의 유혹』, 엘피, 2023.
- Chekhov, Anton Pavlovich, 박현섭 역, 『체호프 단편선』, 민음사, 2012.
- Clare, Eli, 전혜은·제이 역, 『망명과 자긍심: 교차하는 퀴어 장애 정치학』, 현실문화, 2020.
- _____, 하은빈 역, 『눈부시게 불완전한: 극복과 치유 너머의 장애 정치』, 동아시아, 2023.
- Felski, Rita, *Hooked: Art and Attachmen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20.
- Frank, Arthur W., 최은경 역, 『몸의 증언』, 갈무리, 2013.
- _____, 메이 역, 『아픈 몸을 살다』, 봄날의책, 2017.
- Garland-Thomson, Rosemarie, *Staring: How We Loo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_____, 손홍일 역, 『보통이 아닌 몸: 미국 문화에서 장애는 어떻게 재현되었는가』, 그린비, 2015.
- Kafer, Alison, 이명훈 역,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 오월의봄, 2023.
- Kittay, Eva Feder, 김준혁 역, 『의존을 배우다: 어느 철학자가 인지장애를 가진 딸을 보살피며 배운 것』, 반비, 2023.
- Rilke, Rainer Maria, 송영택 역, 『사랑하는 하느님 이야기』, 문예출판사, 2018.
- Tronto, Joan C.,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민주주의』, 박영사, 2023.

3. 논문

- 공임순, 「빨치산과 월남인 사이, '이승만'의 재현/대표성의 결여와 초과의 지표들」, 『상허학보』 27, 상허학회, 2009, 367-405면.
- 구중서, 「최태응의 문학, 그 집념의 고투」, 최태응, 『바보 용칠이 外』, 삼중당, 1975, 289-294면.
- 김인경, 「최태응 소설에 나타난 생태의식 연구」, 『문학과환경』 16(4), 문학과환경학회, 2017, 69-95면.
- 김효석, 「전후 월남작가 연구: 월남민 의식과 작품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_____, 「최태응 소설의 작중 인물 고찰: 결손인물형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0, 우리문학회, 2010, 261-289면.
- 메이, 「'병자 클럽'의 독서: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아픈 사람들」,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편,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

- 기』, 봄날의책, 2020, 135-166면.
- 박진숙,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서양문학 독서행위의 양상과 수용미학」, 『구보학보』 14, 구보학회, 2016, 139-167면.
- 박희병, 「'병신'에의 視線: 前近代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309-361면.
- 반재영, 「붉은 청년과 반공의 교양: 한국전쟁기 젊음(적)의 재현과 성장(전향)의 서사」, 『한국문학연구』 65, 한국문학연구소, 2021, 257-306면.
- 배경열, 「최태웅의 문학세계」, 최태웅, 권영민 편, 『최태웅 문학전집』 1, 태학사, 1996, 437-446면.
- 소현숙, 「식민지 조선에서 ‘불구자’ 개념의 형성과 그 성격」, 『한국학논총』 4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289-320면.
- 안미영, 「최태웅 소설에 나타난 전후 인식: 전후(戰後) 미발굴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42, 어문연구학회, 2003, 117-134면.
- 유임하, 「어두운 시대 현실과 훼손된 삶의 일화들: 온정적 휴머니즘과 최태웅 소설의 현재적 의의」, 임규찬·박수연 외, 『해방과 분단, 경계의 재구성: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논문집 2016』, 민음사, 2016, 227-262면.
- 임종국, 「고난을 극복하는 인생의 슬기: 최태웅의 인간과 작품」, 『여학생』 14(2), 여학생사, 1978, 140-145면.
- 정주아, 「정치적 난민의 공간 감각, 월남작가와 월경의 체험」, 『한국근대문학연구』 31, 한국근대문학회, 2015, 39-63면.
- 차희정, 「해방기 소설 속 장애인의 현실 인식」, 『현대소설연구』 7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489-518면.
- _____, 「장애, 인간의 인간적 대화: 최태웅 소설의 장애 상징성」, 『숫대평론』 6, 한국장애예술인협회, 2020, 122-141면.
- 최은철, 「나의 아버지 최태웅」, 『죽순』 33, 죽순문학사, 1999.
- Garland-Thomson, Rosemarie, “What Misfitting Makes,” *Puncta* 7(1), 2024, pp. 5-22.
- Jain, Sarah Lochlann, “Living in Prognosis: Toward an Elegiac Politics,” *Representations* 98(1), 2007, pp. 77-92.
- Salamon, Gayle, 전혜은 역, 「류머티스학의 현상학: 장애, 메를로-퐁티, 최대한의 움켜잡기의 오류」, 『여/성이론』 49, 도서출판 여이연, 2024, 134-165면.
- Samuels, Ellen, “Six Ways of Looking at Crip Time,”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37(3), 2017, <https://dsq-sds.org/article/view/5824/4684>. 접속일: 2024.8.19.
- Wendell, Susan, 전혜은 역, 「건강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질환을 장애로 대우하기」, 『여/성이론』 27, 도서출판 여이연, 2012, 158-185면.

<Abstract>

Choi Tae-eung's Novel and 'Crip' – The Rhetoric of Power Embodies Despair

Lee, Jihun

This article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figure of the crip in the novels of Choi Tae-eung (1916-1998) and aims to elucidate its specific significance. Choi, who lived with arthritis for many years, represented the self-consciousness of crip in various ways in his novels, creating a unique ontology of people who embody impairments/disabilities. This article aims to emphasize that the body and life, inscribed with despair and strength at the same time, are the core axis of Choi's novels. The works under discussion are those that assert the fact that dependence and care are fundamental conditions of human life, critically consider the ideology of cure, and suggest the power of reading and writing illness narratives. These novels are significant not only as records of Choi's struggles with his own body and life, but also as texts that call for a renewed ethical awareness of impairments/disabilities.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at Choi's novels retain a newness that allows for accidental connections with many people even today, and that they have expanded the boundaries of reading methods early on.

Key words: Choi Tae-eung, Crip, Impairment/Disability, Despair, Power, Dependence, Care, Cure, Illness Narrative

투 고 일 : 2024년 8월 21일

심 사 일 : 2024년 9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4년 9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4년 9월 25일